

● 첫째 아들의 주식 중독 손실액 추정 약 4억 이상.

가족들이 갚아준 채무는 2억 7천.

현재 남은 채무는 1억 2천 이상으로 추정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 캐피탈, 카드 대출, 지인)

퇴직금 주식으로 날리고, 아내 몰래 금붙이를 다 팔음. (약 50돈)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 대출 받음.

아내 명의로 카드 대출 받음.

●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 약 18억

- 빚 : 은행 6억 5천 , 마이너스 통장 1억 , 공사 대금 및 다른 채무 약 5천
총 약 8억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어머니와 첫째 아들의 지분율 각 50%

- 마트와 식당의 사업자는 어머니 100%

- 원룸 사업자는 어머니와 첫째 아들 공동 사업자

● 첫째 아들이 2020년도부터 주식을 시작. 빚을 내어가며 투자를 하다가 22년 1월에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2년 1월: 첫째 아들의 채무를 둘째 아들이 3,180만원을 빌려주어 해결된 것으로 알고 넘어갔습니다. (1차)

-첫째 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빚들을 감당 못하고 있다 하여 다시 지원을 함. (2차)

-23년 8월: 첫째 아들이 어머니 카드로 빚을 내어 고지서를 받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 어플을 통하여 통합 자산 연결을 하여 확인해보니 여러 카드사와 이사를 하며 돌려받은 대출 받았던 전세자금과 차를 팔고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를 하여 생긴 목돈마저 주식에 다 잃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는 부모님이 첫째 아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일부는 둘째 아들이 각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대신변제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이사하며 받았던 전세자금을 갚았다고 하였고 남은 카드 대출은 월급으로 갚아 나아갈 수 있다고 하여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3차)

-24년 3월,4월: 첫째 아들이 아내 몰래 50돈 정도의 금붙이를 팔아 주식에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빚 변제 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당사자 주장은 현대 카드의 채권 추심 압박으로 인해 처분했다 합니다.

캐피탈 대출금 2070만원, 아내 명의의 카드 대출금 500만원을 둘째 아들이 갚아주었습니다. (4차)

-24년 8월 한전 송전탑 보상금으로 약 4800만원씩 어머니와 첫째 아들에게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받은 보상금 중 천 만원은 비상금으로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였으나, 9월 말이 되도록 여러 핑계 (비밀번호 틀림, 이체 한도 부족함, 지점 갔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이체 한도 증가가 어려움)를 대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추궁으로 9월 말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목숨에 지장은 없어 현재는 가족 권유와 본인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값은 것으로 알고 있던 전세 자금 대출금,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고 주식으로 날렸고,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5차)

병원 입원으로 해서 9월을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 된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 궁금한 것.

-첫째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 후라고 하여도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빚을 가족들이 갚아주지 않고 사업자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2. 빚을 갚아 준다 하여도 나중에 부동산이 정리 되고 난 후, 정산금 분배에 있어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방법은 없는지. (빚 문제로 인해 3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 포기각서를 받아 두기는 하였습니다.)
3.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으로부터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는 심각한 도박중독(주식)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고 극단적 선택으로 회피할 생각입니다.
4.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 묶여 있는 공동 명의 및 공동 사업자를 어머니 단독으로 돌리기 위한 준비 과정 및 대략적으로 발생할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